



⑦ 연합뉴스 │ < ▷ 대통령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알; >

Q

മ

뉴스홈 | 최신기사

<올림픽>게이 "100m 탈락해 무척 실망스럽다"

송고시간 | 2008-08-16 22:28











장현구 기자

<올림픽>게이 "100m 탈락해 무척 실망스럽다"

(베이징=연합뉴스) 특별취재단 = 베이징올림픽 남자 육상 100m에서 결승에도 오르지 못한 세계선수권대회 챔프 타 이슨 게이(26)는 "최선을 다했지만 준결승에서 탈락해 무척 실망스럽다"고 고개를 떨어뜨렸다.

게이는 10초05로 준결승에서 조 5위에 그쳐 결승 진출이 좌절된 뒤 16일 밤 궈자티위창(國家體育場)에서 가진 인터 뷰에서 "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. 100% 전력을 다했지만 결승에 오르지 못해 아주 실망스럽다"고 말했다.



이어 "올림픽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진행했고 당연히 결승에는 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패했다"며 진한 이쉬움을 나타 냈다.

게이는 "출발은 좋았지만 운이 없었고 중간 지점부터는 피곤함 을 느꼈다"면서 스타트 직후 초반 레이스 싸움에서 완패했음을 시인했다.

그는 "변명하고 싶지 않다. 보다 많은 훈련을 해야 하고 더 많은 레이스에 참가해야 한다. 노력을 통해 리듬을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"며 좌절하지 않고 계속 세계기록 경신과 2012년 런던올림 픽을 향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.

지난달 초 미국대표선발전 200m 레이스 도중 왼쪽 허벅지 통증 으로 쓰러진 게이는 대표팀 합숙 훈련을 건너뛴 채 독일 뮌헨에서 재활을 하고 올림픽 개막에 맞춰 홀로 이동했다.

통증이 계속돼 레이스에 방해를 받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게이는 "갑작스러운 부상으로 훈련에 지장을 받은 건 사실이 나 그렇다고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다. 지금 허벅지 상태는 많이 호전됐다"고 설명했다.

게이는 21일부터 벌어질 남자 400m 계주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.

cany9900@yna.co.kr



-올림픽-<육상>게이, 남자 육상 100m 결승행 좌절(종합)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08/16 22:28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











핫뉴스 →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다섯식구 평균키 203cm...美 가족 '최장신' 기네스북 등재

'왕좌의 게임' 출연배우,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범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 또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

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 **▶** 02:22

[영상] 압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나 명상]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탄

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상갑자...美, 꺼렸던 무기를 결국 우크라에 [영상] 미국최고위급 키이우 방 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...다음주부터 인원· 시간 제한없다

신규확진 12만5846명...위중증 999명, 이틀연속 900명대

뉴스 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유튜브채널

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해외배포 보도자료국내배포

뭐하고 놀까? **# 흥 →**

② 157 철에고발

2 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"(종합)

3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 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열?

4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"

5 때트체크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계곡살인을 검

찰이 혐의 밝혀냈다?

sns **f**

¥

Ö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

댓글 많은 뉴스

1

<u>@</u> 29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…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
尹당선인 "물가상승 장기화 대비...금리인상 취약층 피해 최 소화" **테마별뉴스**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제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/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뉴스+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

계약사/제휴문의

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흥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관련사이트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:398: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성기홍 [편집인]조채희

외국어

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